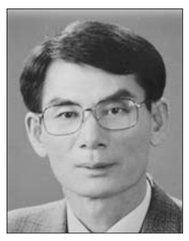
호매칼럼

이전위수(以戰爲守) - 공격함으로써 수비한다 -



이 정 랑
/중국고전평론가

'찬집무편(纂輯武編)' '수(守)'의 수비에 관한 대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성안에 설비가 이미 갖추어져 방어 태세가 완료되었다면, 나가 싸우는 것으로 방어를, 대신하는 기묘한 속임수를 낸다. 공격으로 포위를 푸는 것이다.

공격과 방어는 사물의 양면이다. 전쟁사에서 방어적 공격, 또는 공세적 방어와 단순 소극적 방어가 모두 쓴맛을 보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

성을 지키는 쪽이 성안에서만 고수방어(固守防禦)하다 보면 식량과 무기가 떨어지고 적의 힘을 소모 시킬 수 없기에 장기간 포위당하면 성안에 갇힌 채 고생하다가 죽고 만다.

송나라 때의 나대경(羅大經)이라는 사람은 '학림옥로(學林玉露) '갑편(甲編?권1)'에서 "성을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지키다 죽을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병력을 조직하여 수시로 출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포위망을 뚫고 원군과 연락을 취하는 등 방어를 하면서도 '국부적 진공'을 해야한다.

'싸우면서 지킨다'는 '이전위수'의 전술은 '적극적 방어'의 책략 사상이다. 성을 지키면서도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쪽은 대부분 이러한 '이공위수'나 '지키는 가운데 공격이 있다'는 '수중유공(守中有攻)'의 전술을 취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위나라의 장수, 장요(張遼)는 7천 병력으로 합비(合肥)를 지키고 있었다. 이곳은 손권의 10만 대군이 공격해왔다. 장요는 조조의 작전에 따라 지키면서 공격을 가하는 '이전위수'의 전략으로 '상대의 기를 꺾어 여러 사람을 안심시킨 다음 지켰다.'

그리고 8백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성문을 열고 갑자기 손권의 군대를 공격하여 '오나라 군대의 기를 빼앗았다.' 손건은 10여 일 동안 포위, 공격했으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후퇴했다.'('삼국지' '위서 · 장요전') 장요는 약한 군대로 저 유명한 합비 방어전의 승리를 창출해 냈던 것이다.

서진(西晉) 말, 대장 왕준(王浚)은 선비족(鮮卑族) 단취육권(段就六眷)과 말배(末杯) 등의 군대를 포함한 약 5만의 군대를 파견하여 양국(襄國.-지금의 하북성 형대 서남)에서 석륵(石勒)을 포위, 공격했다.

석륵은 중과부적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부장 장빈(張賓)과 공장이 건의 했다.

"적군은 많은 숫자가 먼, 길을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방어만 하고 나가 싸우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판에 군사들의 기강도 해이해질 것이 뻔해 성을 사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북쪽 보루에다 돌문(突門.-성벽을 뚫고 낸 작은 문으로, 밖을 공격하려 할 때 갑자기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을 20여 개 내서 적이 아직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을 때 불의의 기습을 가해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합니다. 작전이 미쳐 수립되기 전에, 말하자면 미쳐 귀를 막기 전에 천둥을 치는 것입니다."

석륵은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는 일단 병사들로 하여 성 위에서 북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함성을 지르게 하여 적의 주력을 딴 곳으로 유인한 다음, 느닷없이 성 아래 돌문을 뚫고 나갔다.

돌문 밑에 숨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출격하여 대승을 거두고 승세를 몰아 적을 추격하니 시체가 30여 리나 널렸고 기마 5천 필을 노획했다.('진서(晉書)' '재기(載紀 제4 · 석륵 상.')

당나라 때 '안사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이광필(李光弼)이 지휘한 태원(太原) 방어전에서도 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광필은 여러 차례 땅 밑으로 길을 뚫고 나와 적을 기습하여 적진을 파괴하는가 하면, 거대한 투석기도 만들었는데 '2백 명이 끌어야 했고, 돌에 맞으면 한 번에 수십 명이 죽었다.' 최후에는 '결사대를 출전시켜 적을 공격, 7만 명의 목을 베니' 적은 패주하고 태원의 포위는 마침내 풀렸다.('신당서' '이광필전',)

역시 안사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장순(張巡)은 옹구(雍丘.-지금의 하남성 기현)를 수비하고 있었다.

약 4만의 적군이 성 아래에 이르자 성내 군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장순은 '적병의 기세가 예리하긴 하나 우리를 깔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지금 불의의 기습을 가하면 놀라 흩어질 것이다. 적의 기세가 다소 꺾인 다음 성을 굳게 지키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몸소 1천 명을 몇 부대로 나누어 벼락같이 문을 열고 나가 맨 앞에서 적을 향해 돌진하니 '사람과 말이 놀라 무서워 뒷걸음질을 쳤고 적은 마침내 후퇴했다.'

얼마 뒤 장순은 유명한 수양(지금의 하남성 상구현 남쪽) 방어전에서 같은 전술로 큰 전과를 올렸다.('자치통감' '당숙종지덕원년 唐肅宗至德元年')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벌에 쏘였을 때 대처법 숙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하나둘씩 벌집제거 출동이 늘어나고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벌에 쏘이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다.

한해에 벌집제거를 위해 출동하는 경우는 화재나 기타 구조출동보다 더 많다. 소방관이 아니라 벌집제거반이라고 농담을 할 정도다.

일단 벌에 쏘이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선 벌집이 있을만한 장소를 피하고, 벌들이 보이거나 벌들의 소리가 들리면, 최대한 천천히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게 중요하다.

벌들은 벌집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침입자로 인식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만 벌집에서 멀어지면 허무하리만치 공격을 멈춘다. 그래서 벌집의 위치를 파악해 그 장소를 이탈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또한 벌집이 보일 경우 벌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량음료, 과일 등 단 음식을 주위에 두지 말고,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수, 화장품 및 화려한 색깔의 복장을 피하도록 한다.

벌이 가까이 접근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쫓으려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피하거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이 좋다.

벌에 쏘였을 때는 우선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피부에 벌침이 박혀 있는지 살펴본다.

침이 피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침을 손톱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침을 피부와 평행하게 옆으로 긁어주면서 제거한다.

핀셋 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침의 끝부분을 집어서 제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침이 피부에 없거나 제거한 후에는 벌에 쏘인 자리를 비누와 물로 씻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쏘인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10~15분간 대주어 붓기를 가라앉히면 통증감소 및 독소의 흡수속도를 느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여 독소가 심장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쏘인 부위에 가려움과 통증만 있는 국소적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피부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고, 진통제는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기존에 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또는 벌에 쏘인 후에 몸이 붓고, 가렵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증세,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경련 및 의식저하 등의 전신성 과민성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면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박수현(여수소방서 여서센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넓고 복잡한 건물에 출입할 시에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정도는 미리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건물의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등을 장애물로 가리거나, 비상구 앞을 장애물 적치 등으로 막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으로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포상을 받기위해 무분별한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불법행위를 신고해 주기 바란다.

/이승환(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기사제보 E-mail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 · 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차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의견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충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3644-7272
나 주…010-3644-1309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3647-6161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4217-9480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4132-8080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고 흥…010-7175-3500
광 산…010-7613-4320